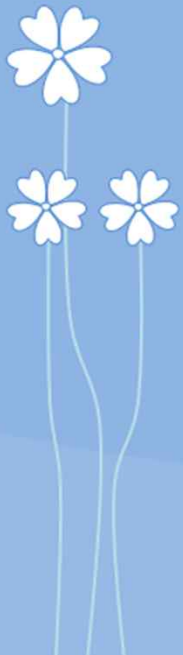


R. Descartes (1596-1650)

- Cogito ergo s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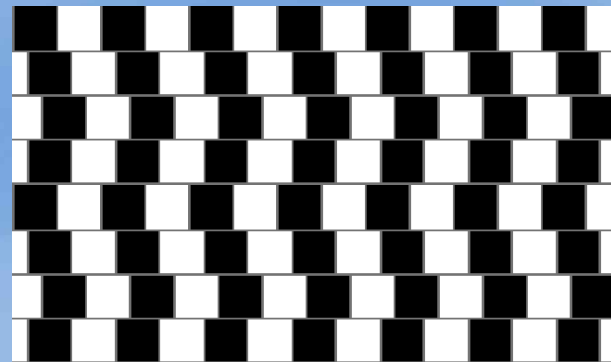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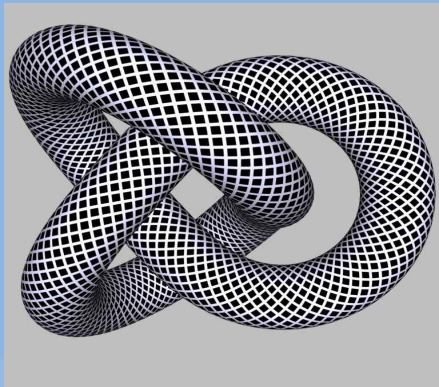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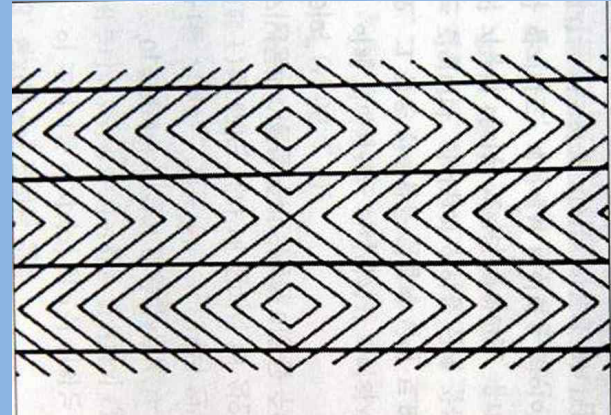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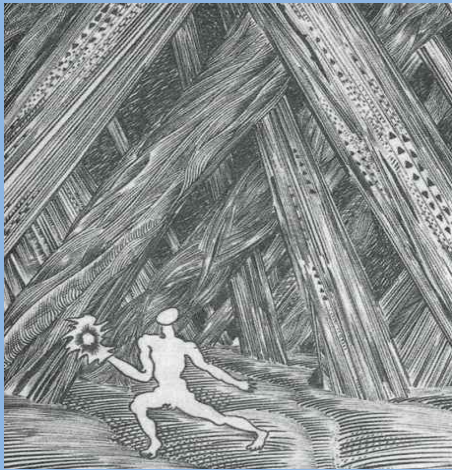
“데카르트는 실재가 두 가지의 근본 실체, 즉 사유와 연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원론으로 기술한 반면, 스피노자는 다양한 속성과 양태를 가지고 있는 자연이라는 단일한 실체만이 존재한다는 일원론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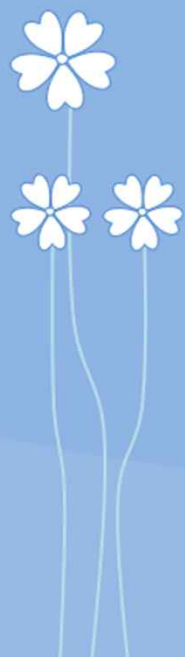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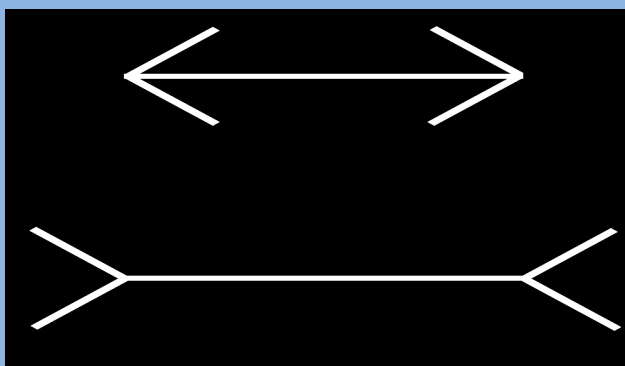


스웨덴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강의하는 데카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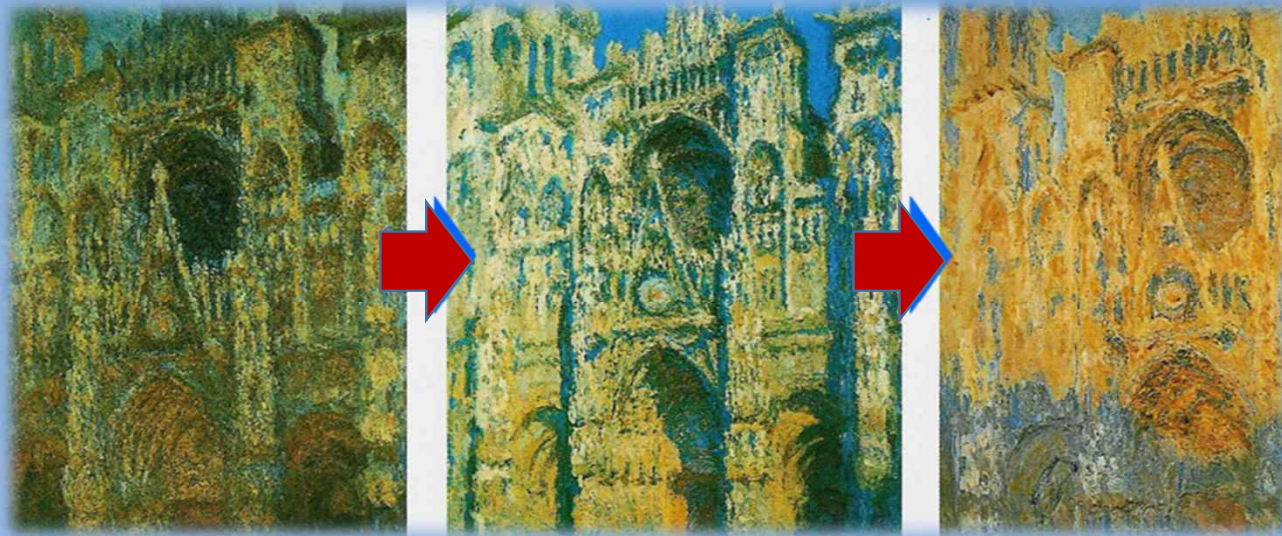
의심의 숲에 빠진 데카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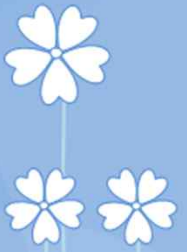
클로드 모네의 '루앙 교회' ::

- 1)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만 사물이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 2) 감각 지각은 외부 세계에 대해 주관적, 불분명한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 3) 단편적이며 주관적, 우연적 지식만을 제공한다.



<방법서설, 성찰>에서

나는 전에 증명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근거들을 거짓된 것으로 폐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잠들어있을 때조차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참된 것이란 어떤 것도 없다. 나는 바로 이점을 알았기 때문에 내 정신 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꿈속에서 보았던 환영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참이 아니라고 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간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반드시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어서 그 어떤 회의주의자의 가정조차도 이를 흔들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철학하는 제1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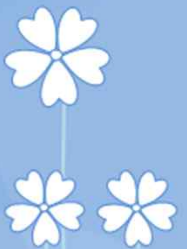
1. 방법적 회의

그는 우리의 지식을 이루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을 발견하기 위해 ‘회의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나는 오직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거부해야 한다”며 모든 것에 회의를 품었다. “나는 나의 감각이 때때로 나를 잘못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상과 실재를 분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러나 수학과 기하학은 확실성을 지닌다. 왜냐 하면,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에도 $2+3 = 5$ 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5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알게 해주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신은 기만에 능숙할 뿐 아니라 악의 화신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전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 직관과 연역 :

한편, 연역이란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모든 추론들”을 말한다. 직관과 함께 연역은 공통적으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직관을 통해 완전하고 직접적으로 단순한 진리를 파악하며, 연역, 즉 “정신의 연속적이고 방해받는 행위”를 통해 진리에 이른다.

지식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 직관과 연역 이외에 그는 <규칙>에서 21가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셋째, 우리가 주제를 탐구할 때, 우리 스스로 명석하고 판명하게 알 수 있고, 확실히 연역할 수 있는 것으로 향해야 한다. 그는 <방법서설>에서도 규칙을 제시한다. 첫째, 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둘째, 검토중인 어려운 문제들은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라. ...



3. 실체 이원론 : 정신과 육체 그리고 동물 $\frac{1}{2}$

데카르트 사상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원론적이며, 이것은 자연에 두 종류의 실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유(thought, 정신적인 것)와 연장(existence, 물질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을 육체와 연관 지을 필요도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이렇게 되면, 동물과 생물은 모두 물질적 실체이기 때문에 역학적,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에 원숭이 또는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기관과 모양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계가 원숭이 또는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의 신체와 비슷하고, 우리의 행동을 아무리 비슷하게 모방해낼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인간일 수 없는데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와 같은 기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호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점이다. 둘째, 그와 같은 기계가 어떤 일을 매우 잘 처리한다고 해서 또 다른 일을 역시 잘 처리해낸다는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그 기계는 인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관의 배치에 따라서만 작동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